

# 나주시 또 '살충제 계란'... 전량 회수·폐기

## 전남도 산란계 농가 106곳 일제검사... 난각코드 'SR8MD'

### 검사 마친 5곳중 1곳서... 미검사 101곳 중 추가 검출 가능성

나주의 한 산란계농가가 생산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비상이 걸렸다. 정부와 전남도는 해당 농가가 생산한 계란의 긴급 회수·폐기에 나섰다. 소비자들은 지난해 8월 전국을 휩쓴 '살충제 계란' 공포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22일 전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나주시 공산면 한 산란계농가가 생산한 난각코드(계란검체에 찍힌 생산자 표시) 'SR8MD(사진)' 계란에서 '피프로닐 대사산물'

(피프로닐 설펜)이 0.07mg/kg 검출됐다. 이 살충제 성분의 기준치는 0.02mg/kg으로, 기준치를 3.5배 초과했다.

해당 농가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농장으로, 산란계 4만마리를 사육하며 하루 평균 2만4000여개의 계란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해당 농가의 계란을 출하 중지하고, 규제 검사를 강화했다. 특히 해당 농가가 생산한 계란 45일분 110만개의 유통 과정을 추적해 긴급 회수·폐기에 나섰다.

110만개 중 25만개는 농가에서 보관 중이며, 나머지 80여만개는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난각코드 'SR8MD' 계란을 샀다면 판매처에 반품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부적합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은 해당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있다"며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울들이 처음 발생한 '살충제 계란'은 산란계 농가 일제검사 결과 드러났다. 전남도는 지난 11일부터 전남지역 산란계 농가 106곳을 대상으로 농약 성분 33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일제검사를 마친 5개 농가 중 1

곳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점이다. 앞으로 검사하게 될 101개 농가 가운데 추가 검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다.

전문가들은 밀식사육 환경을 동물복지 환경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밀식 사육을 하는 한 살충제 계란 파동은 상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농약을 불법 사용하는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농가는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볼 수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

## "대진 라돈 침대 한달내 수거"

### 원안위, 7개 모델 6만여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일부터 대진침대가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하루 2천개 이상씩 수거, 한 달 내 수거를 완료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거 대상은 뉴웨스턴슬리퍼·그린헬스·네오그린헬스·모젤·벨라루체·웨스턴슬리퍼·네오그린슬리퍼 등 대진침대 매트리스 모델 7종 6만여 개다.

수거는 대진침대가 선정한 외부 용역업체를 통해 진행된다. 수거신청은 대진침대 고객상담접수센터에 전화(1544-4475, 02-538-2800)나 홈페이지(www.daijinbed.co.kr)를 통해 할 수 있다.

매트리스 수거 전 토론토(라돈의 동위원소)를 대부분(99.5% 이상) 차단할 수 있는 매트리스 밀봉 비닐도 우편으로 보내준다. 22일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홈페이지(www.kins.re.kr)에 신청하면 된다.

원안위는 또 대진침대 매트리스 16종에 대해서도 23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부적합 제품으로 확인된 모델은 수거 조치할 방침이다. /김용희기자 kimyh@



번뇌 사라지길... 부처님 오신날인 22일 광주시 서구 무각사에서 열린 불초법요식에 참가한 불자들이 아기부처를 목욕시키는 관불의식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흑산도 학생 숙원 '스쿨버스' 여름부터 다닌다

### 69명 1~2시간 걸어 등교... 전남교육청 관용 버스 지원

목포에서 서남쪽으로 90km가량 떨어진 신안 흑산도에도 사람이 살고 학교와 학생이 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통틀어 69명.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나 면적은 49.25km², 해안선의 길이는 41.8km에 달할 정도로 비교적 큰 섬이다. 지난 1932년 5월 흑산초가 개교한 이래 섬 곳곳에 흩어져 사는 학생들은 1~2시간 이상 걸어서 등교해 왔다. 최근에는

마을 버스 노선과 등교 길이 겹치는 일부 학생이 버스를 이용하는 게 고조되었다. 흑산도에 이르면 올 여름부터 스쿨버스가 처음으로 운행에 들어간다.

전남도교육청과 신안교육청은 그동안 흑산초 분교 통·폐합에 따른 원거리 등·하교생을 위해 택시비(4명), 하숙비(6명)를 지원했으나, 흑산초와 흑산초 병설유치원·흑산중 등 학교 측이 "통학비 지원 말고 우리도 스쿨버스를 지원해달라"고

요구한 것을 받아들였다.

학생·학교·교육청의 뜻이 모이면서 올 신학기부터 운행에 들어가려 했던 스쿨버스는 뜻밖의 난관에 부딪혔다.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스쿨버스 운행 업체 모집 입찰 공고를 4차례나 내냈지만 나서는 업체가 단 한 곳도 없었던 것이다.

사업자들은 "수지가 맞지 않는다", '운전원·안전도우미 채용이 어렵다', '관광버스 영업도 함께하면 고려해보겠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지난 겨울부터 '새학기엔 우리 학교도

스쿨버스가 생긴다'며 부풀었던 가슴이 실망으로 바뀌어 갈 즈음 신안교육청이 다시 한 번 꾀를 냈다.

임차버스 말고 관용차(버스)와 운전원 배정을 도교육청에 요청하는 것으로 발상의 전환을 한 것이다.

신안교육청은 관용차 배정을 요청하면서 "관용차로 운영할 경우 운전원 미배치 시 지역주민으로 대체 가능하다. 차고지 문제 등 현지 사업자 및 주민 민원 소지도 적고 매년 임차계약을 할 필요 없어 안정적인 통학지원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도교육청도 "이번 추경 반영을 통해 2~3개월 안에 관용 스쿨버스를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형호기자 khh@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4    달맞이 13:15  
해질 19:35    달뜨기 01:46

### 대기 특보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 중국 중북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 지역별 날씨(°C)

광주	16/24	보성	16/24
목포	16/21	순천	16/26
여수	17/25	영광	14/20
나주	16/24	진도	16/20
완도	17/24	전주	15/23
구례	16/25	군산	15/21
강진	17/24	남원	16/24
해남	16/23	홍산도	12/17
장성	15/23		



### 바다 날씨

지역	해상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북서~북	0.5~1.5	북서~북	0.5~1.0
남해	남부	북서~북	1.5~2.5	북서~북	1.0~2.0
남해	남부	서~북서	0.5~1.0	북서~북	0.5~1.0
남해	남부	서~북서	1.0~2.0	북서~북	1.0~2.0
남해	남부	남서~서	1.0~2.5	북서~북	1.5~2.5

### 생활지수

관심	☔
식중독	☠
매우높음	☀
자외선	☀
나쁨	☀
미세먼지	☁

### 물때

목적	간조		만조	
	01:09	14:16	08:45	21:15
여수	10:13	22:29	03:42	16:39

### 주간 날씨

24(목)	25(금)	26(토)	27(일)	28(월)	29(화)	30(수)
☀	☀	☀	☀	☀	☀	☀
12/27	14/27	15/28	16/28	16/25	15/26	15/27

## 광주·전남 내일까지 중국발 황사

중국발(發) 황사가 24일까지 광주·전남을 덮칠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3일과 24일 중국 중북지방과 중국 고비사막에서 발원한 황사가 기압골의 후면을 따라 한반도에 유입돼 광주와 전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 황사는 23일 오후 서해안과 일부 내륙을 시작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광주에서 황사가 관측된 날은 2일로 지난해 6월과 15일에 관측됐으며 지난해 광주의 황사 관측일수는 총 6일로, 절반(3일)이 5월에 집중됐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황사 영향으로 24일까지 광주·전남 미세먼지 예보는 '나쁨' 단계로 전망했다.

/김영희기자 young@kwangju.co.kr

## 광주 심폐소생술 의인 '소방청장상'

### 장미씨, 두암동 마트서 쓰러진 50대 응급처치

의식을 잃고 길거리에 쓰러진 50대 여성을 심폐소생술로 구한 40대 의인 '하트세이버' 표창과 소방청장상을 받았다.

20일 광주북부소방에 따르면 장미씨(여·45)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4시 20분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의 한 마트 앞에서 A(여·58)씨가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다.

장미씨는 A씨가 호흡·맥박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즉시 119에 신고하는 한편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2분여간 A씨를 흉부압박 등 심폐소생술을 한 뒤 119가 도착하자 자리를 떴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

북부소방서는 지난해 연말 하트세이버(심정지 환자를 도와준 국민과 구급대원에게 인증서와 배지를 수여하는 제도)와 소방청장상 대

상으로 장씨를 추천했다. 지난 21일 장씨의 직장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장씨는 "심폐소생술을 정식으로 배운 적은 없지만 언론 등을 통해 방법을 익혔다"며 "작은 행동에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의 새이름

# 신세계안과

7월 1일 이름을 바꿉니다 (현 의료진 그대로)

- 2013년 3D스마일수술 도입
- 3D스마일수술 15,000건 기록 (2018년 2월 28일 기준)
- 레이저 다초점 노안, 백내장 교정술 시행

1566-9988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농업

###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직접 운영하실 분 ▶ 땅만 있으면 발전 설비해 드립니다. 원금, 이자 배고 6~8% 가능

장기 임대주실 분 ▶ 20년후 기부채납 (임대비 선불로 드립니다)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교박교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